학번: 21800201 이름: 김현욱 분반: 02

전체 PRS 소감문

항상 학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첫 4주 동안은 정말 주기적으로 읽고 또한 혼자 방에서 기도드리는 시간도 가졌었던 것 같다. 학업이 바빠지면서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PRS를 통해서 읽는 시간마저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해서 듣는 자투리 시간으로 읽기도 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경 구절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다 보니 삶 속에서 내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다. 특히나 예언서를 읽을 때 조금 더 감동이 많이 왔었던 것 같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느 구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여러 번 듣고는 했다. 그렇게 전해 듣기만 했지 사실 내가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구절 하나 하나를 읽으면서, 이 구절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도 들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는 사실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신 에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었다.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런 분은 믿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감사했던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을 흘려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을 한다. 나도 그러한 부류의 학생들 중 하나였지만, 이번 학기 PRS 성경을 읽고 또 부모님께서 신앙을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학기 초에 할머니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든 친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정말 윗 분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 눈치를 많이 주고 화도 버럭 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신앙을 지키시고 그 신앙을 나에게 물려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두 번째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었던 학기라고 생각한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축복에 감사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세대를 거슬러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바빠지는 일상에 PRS를 의무감에 한 순간들도 많고 정말 조금이라도 읽어야겠다 해서 성경을 펼친 순간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또한 은혜를 찾을 수 있었던 순간들에 모두 감사드린다.